



안녕하세요, 박영미 시냇물 수녀입니다. 1986년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 입회하여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배로 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3남1녀 중 막내딸로 태어나 천주교신자였던 사람들의 삶속에서 하느님 체험을 해왔습니다. 가톨릭학교였던 고등학교시절 교내피정에서 인천교구 교구장님이셨던 고(故) 나 굴리엘모 주교님의 인자한 모습을 뵈고 성소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5년 서울에서 있었던 사랑의 씨튼 수녀회 '성소피정'에 참석하게 되었고, 저에 대한 하느님 은총의 부르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작은 골방에서 촛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를 본 어머니는(당시 예비신자) "우리 영미가 좀 이상하다"며 자주 놀래셨다고 합니다.

1989년 첫 사도직인 강진분당 수녀로 일할 때 한 자매님이 저를 보고 "성모님이다"라고 하시는 말을 듣고 저는 "아 저분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모상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자매님의 신앙의 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자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도 성모님처럼 하느님을 모시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수녀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어 세 곳의 분당 수녀로 일하다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강진씨튼어린이집,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씨튼노인복지센터, 씨튼해바라기의집(청소년), 부천여성의쉼터(가정폭력), 갈현동성당데이케어센터(치매어르신)에서 사회적



으로 소외된 분들을 동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성모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개신교 치매어르신은 저를 보면 "그리스도의 정배야"라고 매일 말씀하시면서 제 마음을 재촉해주셨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 성북동의 '마더씨튼집'에서 초창기 수녀님들과 아프신 수녀님들 그리고 외국에 파견된 수녀님들을 위한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더씨튼집 공동체가 정한 올 해의 사명은 "마더씨튼의 어머니다운 사랑과 포용으로 회원들의 다양한 필요에 응답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상호문화를 기억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이곳을 찾는 모든 이에게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환대하며 공동체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응답하는 중입니다.

한국에 오신 후 마더씨튼집에서 함께하셨던 문말린 수녀님은 선종 후에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사랑으로 우리공동체에 살아계십니다. 수녀님께서는 자주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늘 겸손하게 다른 이의 입장을 알아채시고 표현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들은 정확도는 느낌으로 겸손하게 응답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문말린 수녀님과 함께했던 삶의 여정은 마더씨튼집이 이 지상에서의 삶 뿐 만아니라 하느님께 맞닿은 여정의 길에서 우리가 서로를 맞이하고 보내드리고 잠시 머물고 소통하고 갈 수 있는 곳임을 강하게 확인 시켜주었습니다.

"내 마음이 정상을 향하여 이끌려 가면 갈수록,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을 더욱 아끼는 마음으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명상록 4월 4일)



리공동체에 살아계십니다. 수녀님께서는 자주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늘 겸손하게 다른 이의 입장을 알아채시고 표현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들은 정확도는 느낌으로 겸손하게 응답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문말린 수녀님과 함께했던 삶의 여정은 마더씨튼집이 이 지상에서의 삶 뿐 만아니라 하느님께 맞닿은 여정의 길에서 우리가 서로를 맞이하고 보내드리고 잠시 머물고 소통하고 갈 수 있는 곳임을 강하게 확인 시켜주었습니다.





Hello! Sisters! My name is Park Young Mi (I) (nickname- River). I entered our community in 1986. By God's grace, I am living as a bride of Christ as a sister of Charity. I was born the youngest of four children. I have three older brothers, and my hometown is Incheon. My family is Catholic. As a Catholic high school student, I participated in a retreat for the first time. For the retreat, Bishop William J. McNaughton (first bishop of Incheon diocese, Maryknoll Missionary, 1926-2020) visited the school and greeted students. His gentle and warm appearance as a shepherd inspired me to dream of being a religious. When I become a young adult, the dream still urged me to look for a religious vocation, and in 1985 I took

part in the vocation retreat in Seoul offered by our community. That was the beginning of my journey in God's Call. Since then I fell in love with praying in the small room with a lighted candle. Seeing my behavior, my mother (she was a baptismal candidate at that time) was surprised and worried about me, saying, "My little Young-Mi is a little bit strange."

My first ministry was pastoral work at Gangjin Catholic Church. One day I heard a woman say, "she is the Blessed Mary" speaking of me. On hearing her words, I realized that people see the image of the living God present among us, and her eyes of faith touched me. Keeping the memory in my heart often, I am trying to live a religious life, bringing God to those I meet in my daily life like our Blessed Mary. After that, I worked at three more parishes. Then I studied social welfare. As a social welfare worker at Seton Day Care Center in Gangjin, Jaecheon Social Welfare Center, Seton Day Care Center for the Elderly, Seton Sunflower House (young adults), Bucheon Women's Shelter



(domestic violence), Galhyundong Parish Day Care Center for the elderly(dementia), I could accompany the marginalized in society. During those years, I tried to work for them with the heart of Jesus and Blessed Mary. One of the Day Care Center residents for elderly with dementia used to tell me "you are the bride of Christ." This remark urged me to live out the life of the bride of Christ in my life.



Now I am living at Mother Seton House with the sisters of the early Korean Province's history, sick sisters, and missionary sisters staying here during their visits to Korea. Our local house's mission motto this year is, "With the motherly love and inclusiveness of Mother Seton, we respond to the needs of our sisters and build a community of love." To implement this, w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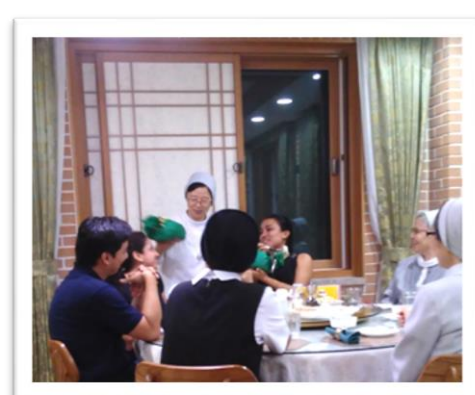
are trying to listen, respect one another, remember the essence of interculturality, welcome all the visitors

here with the warm heart of a mother, and respond to the community's needs.

Sr. Marlene, who passed away, is still alive in our



hearts at Mother Seton House. She often said to us, "Thank you, Love you." She always considered others and put herself in their shoes with humility and empathy. Her presence and attitude enabled us to learn to think of others' positions first and purify our motivation. The life journey with Sr. Marlene assured us that Mother Seton House is where we can welcome, communicate, love one another in our earthly pilgrimage, and say farewell to each other after the journey as one community.



"I find in proportion as my heart is more drawn towards the summit, it looks back with added tenderness to everyone I have ever loved; much more to those who have long possessed." (St. Elizabeth Ann Seton)